KEF 경총 KOREA ENTERPRISES FEDERATION 노사협력 이슈보고서 2022-1

2022년 노사관계 전망조사

◂ 목차 ▸

1. 2022년 노사관계 전망 / 1
2. 노사관계 불안 요인 / 2
3. 단체교섭 개시시기, 소요기간 전망 / 3
4. 2022년 임금인상 수준 전망 / 4
5. 임단협 쟁점 사항 / 5
6. 단체교섭 개선 과제 / 6
7. 차기 정부의 노동 관련 법·제도 개선 과제 / 7

〈 조사개요 〉

※ 「2022년 노사관계 전망조사」는 한국경영자총협회(회장 손경식)가 회원사 151개(응답 기업 기준) 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12월 21일부터 2022년 1월 4일까지 15일간 조사한 결과임.

1 2022년 노사관계는 2021년에 비해 불안할 것으로 전망

□ 2022년 노사관계 전망을 조사한 결과, 응답기업 중 68.9%가 '2022년 노사관계가 2021년보다 더 불안해질 것'으로 전망

- 2022년 노사관계가 2021년보다 '훨씬 더 불안해질 것'이라는 응답은 19.2%, '다소 더 불안해질 것'이라는 응답은 49.7%로 조사됨.

- '비슷한 수준일 것' 27.8%, '다소 안정될 것' 2.6%, '훨씬 안정될 것' 0.7%로 집계됨.

[그림 1] 2022년 노사관계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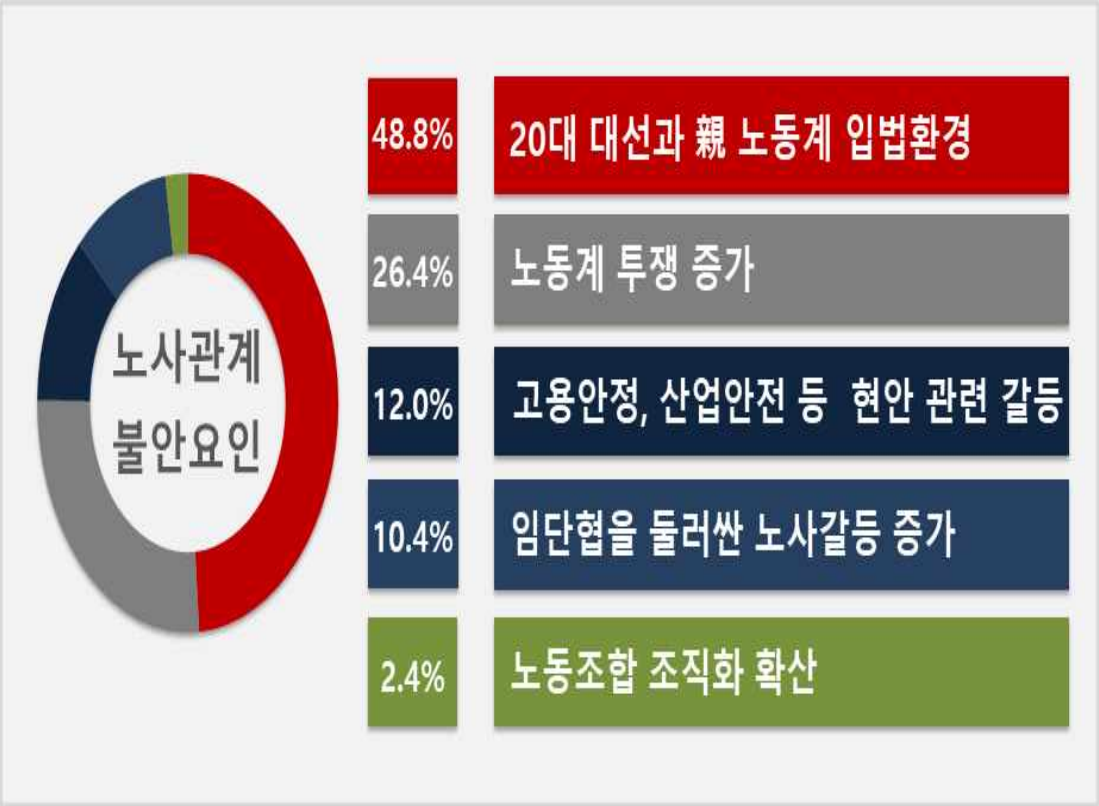
※ 훨씬 더 안정 : 0.7%

2 노사관계 최대 불안요인은 제20대 대선과 親 노동계 입법환경

□ 2022년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할 요인으로 '제20대 대선과 親 노동계 입법환경'(48.8%), '노동계 투쟁 증가'(26.4%), '고용조정, 산업안전 등 현안 관련 갈등 증가'(12.0%) 순으로 응답함.

- 다음 불안요인으로는 '임단협을 둘러싼 노사갈등 증가'(10.4%), '노동조합 조직화 확산'(2.4%)으로 답변함.

[그림 2] 2022년 노사관계 불안요인



3 임단협 개시시기는 지난해와 비슷(3~6월)할 것으로 전망, 교섭기간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

□ 2022년 임단협 개시시기 전망에 대한 조사결과 '3~4월'이라는 응답이 33.3%로 가장 많이 나타남.

○ '5~6월' 27.8%, '7월 이후' 24.1%, '1~2월' 14.8%로 조사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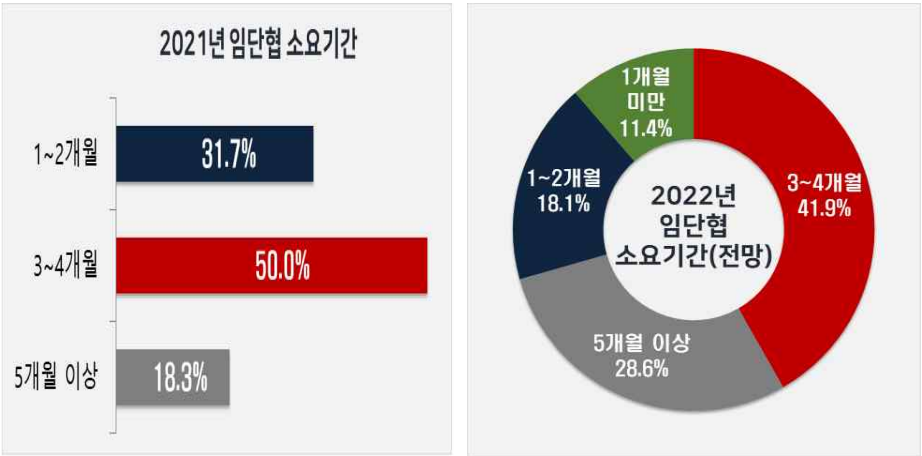
※ 2021년 임단협 개시시기를 조사한 결과 '3~4월' 33.3%, '5~6월' 27.4%, '7월 이후' 22.6%, '1~2월' 16.7%로 나타남.

[그림 3] 2021년 임단협 개시시기 및 2022년 전망

□ 2022년 임단협 기간으로 '3~4개월'이 소요될 것으로 응답한 비율이 41.9%로 집계된 가운데 '5개월 이상' 비중은 지난해보다 10% 늘어남.

○ '5개월 이상' 28.6%, '1~2개월' 18.1%, '1개월 미만' 11.4%로 조사됨.

[그림 4] 2021년 임단협 소요기간 및 2022년 전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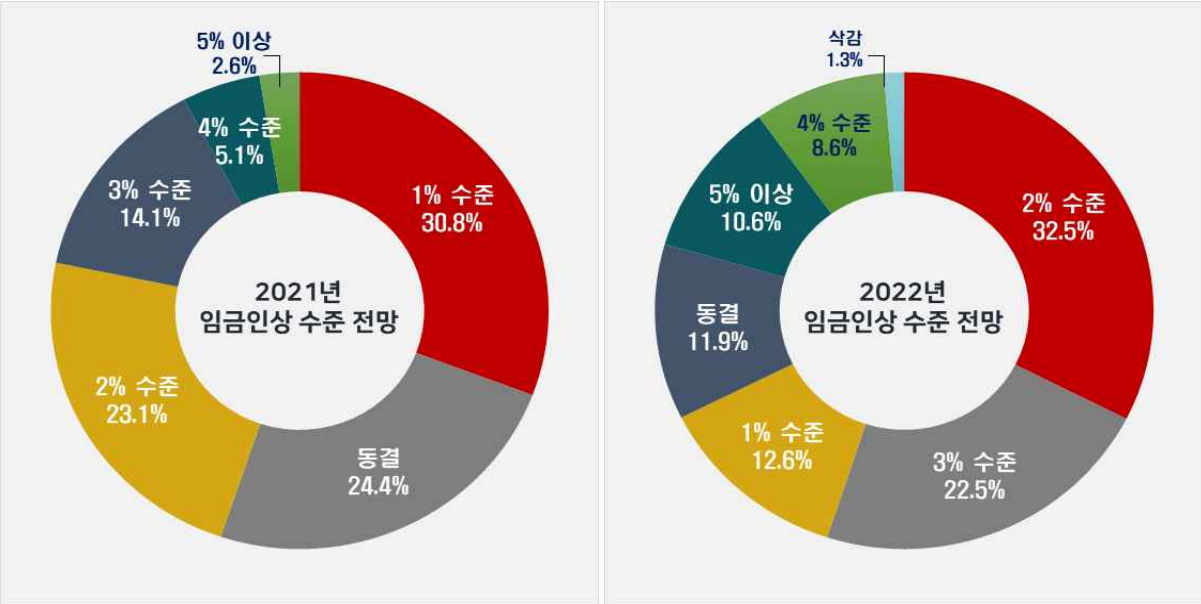
4 2022년 임금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'2% 수준'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

□ 임금인상 수준 전망에 대한 조사 결과, 응답기업의 32.5%가 '2% 수준'이라고 답변함.

○ 2021년에는 1% 수준 이하(1% 수준 30.8%, 동결 24.4%)가 절반을 넘었지만, 올해는 '2% 수준'을 가장 많이 응답함.

○ 그 다음으로 '3% 수준' 22.5%, '1% 수준' 12.6%, '동결' 11.9%, 순으로 조사됨.

[그림 5] 2021년 및 2022년 임금인상 수준 전망



5 임단협 주요 쟁점은 임금체계 개편, 고용안정, 정년연장

□ 2022년 임단협에서 임금 및 복리후생 이외에 어떠한 사항이 가장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는지 조사한 결과, '임금체계 개편'(25.8%), '고용안정'(17.2%), '정년연장'(16.6%) 순으로 응답함.

○ 그 밖에 '인력충원' 13.2%, '유연근무제 도입' 9.3%, '조합활동 확대' 7.3%, '산업안전 및 산재보상 관련 요구' 6.6%, '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' 3.3% 순으로 집계됨.

[그림 6] 2022년 임단협 쟁점사항 전망

※ 산별교섭 참가 : 0.7%

6 단체교섭 관행 중 시급하게 개선할 사항은 경영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과도한 요구

□ 기업들은 우리나라 단체교섭 관행 중 시급하게 개선할 사항으로 노동계의 '경영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과도한 요구'(62.9%), '교섭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 요구'(18.5%)를 가장 많이 선택함.

○ 그 밖에 '파업 돌입을 예정한 형식적인 교섭' 7.3%, '임단협 사항의 정치 이슈화' 5.3%, '조합원 찬반투표 부결시 재교섭' 4.0%, '불법행위 면책요구' 2.0% 순으로 집계됨.

[그림 7] 단체교섭 개선 과제

7 차기 정부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노동 관련 법제도는 중대재해처벌법

□ 차기 정부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노동 관련 법제도를 조사한 결과, '중대재해처벌법 개선'(33.1%)을 가장 많이 선택함.

○ 다음으로 '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' 23.2%, '근로시간제도의 유연화' 17.9% 순으로 응답함.

○ 그 밖에 '해고규제 완화' 9.3%, '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' 7.9%, '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' 4.0%, '취업규칙 변경절차 간소화' 3.3%, '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명문화' 1.3%로 조사됨.

[그림 8] 차기 정부의 노동 관련 법·제도 개선 과제

끝.

조 사 개 요

1. 조사목적

2022년도 노사관계 동향을 예측하고, 이를 통해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경영계의 효과적인 대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

2. 조사범위 및 대상

2021년 12월 21일부터 2022년 1월 4일까지 경총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

3. 조사방법

이메일과 팩스 등을 통한 자계식 조사

4. 주요 조사항목

- 2022년 노사관계 전망
- 노사관계 불안 요인
- 단체교섭 개시시기, 소요기간 전망
- 2022년 임금인상 수준 전망
- 단체교섭 개선 과제
- 차기 정부의 노동 관련 법·제도 개선 과제

5. 회수업체수

구 분	회수업체수
전 체	조사대상 경총 회원사 408개 중 151개사 (회수율 : 37.0%)